

# 금년도 축산정책 어떻게 펼쳐지나?

## - 양돈정책을 중심으로 -

○..... 정부는 금년도 축산정책 목표를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두 .....○  
 ○..... 고, 이를 위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제도의 정착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국제 .....○  
 ○..... 경쟁력 제고 ▲축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정착 ▲사료의 안정적 공급 ▲가축의 위생 .....○  
 ○..... 방역 강화 및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축산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을 .....○  
 ○..... 중점 추진,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기도 했다.....○  
 ○..... 정부가 금년 축산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입할 자금은 국비 2백212억원, 지방비 6억원, .....○  
 ○..... 구조조정기금 82억원, 축산진흥기금 1천6백33억원 등 총 1천9백34억5천3백만원이다. ....○  
 ○..... 본지는 독자들의 양돈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축산정책중 .....○  
 ○..... 양돈정책을 농림수산부 축산국 각 과 소관별로 요약, 소개한다<편집자 주>.....○

### I. 중소가축과 소관 정책

#### 1.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

금년도 연평균 돼지가격 유지목표를 90kg 1두당 11만5천원으로 정하고, 90년말 돼지 사육두수를 5백만두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금년도 돼지고기 수요는 국내 수요 48만톤, 수출 1만5천톤 등 총 49만5천톤으로 예상되나 생산은 수요보다 1만6천톤이 모자라는 47만9천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금년도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연간, 계절별(분기별)로 돼지수급 및 가격 전망을 분석해서 유인물을 통해 발표하고, 가격동향에 따라 양돈업 등록·허가업체를 대상으로 사육조절을 펴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현재의 평시 출하체중 90kg을 100kg 이상에서 출하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양돈조합·돼지고기 수출업체, 육가공업체에 돼지고기 비축자금 20억원(두당 10만원, 2만두분)을 연리 3%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잔여육 비축자금으로 30억원을 연리 8%로 지원하고 양돈업 업종조합 1개소에 축산물 비축시설자금 10억원을 연리 3%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 2. 돼지고기 수출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3천톤 늘어난 1만5천톤으로 정하고, 수출을 통해 7천5백만불의 외화를 획득키로 했다.

정부는 돼지고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돈육수출업체, 육가공업체, 수출규격돈 생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돼지고기 수출촉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모돈(중돈 포함) 500두 이상 사육업체 또는 수출규격돈 생산 희망 등록업체 등을 수출용 규격돈 생산업체로 지정해 수출용 규격돈 생산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89년말 현재 돼지고기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일정기준의 시설과 기반을 갖춘 업체를 돼지고기

수출업체로 지정하여 시설자금과 잔여육 비축자금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수출전용 가공 및 처리장 1개소에 10억원, 육가공공장 2개소에 10억원의 시설자금을 연리 8%(업종 3%)로 지원키로 했다.

### 3. 돼지개량 및 경영합리화

정부는 '90년도에 돼지개량 목표를 복당산자수 9.5두, 등지방두께 2.0cm, 90kg 도달일령 150일로, '96년에는 이를 각각 10.5두, 1.8cm, 145일로 정하고 종돈개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 정한 종돈관리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87-12호)에 따라 종돈업 등록업체 및 종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금년 1~6월중에 종돈업 등록업체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또 검정위원 전문화와 농장검정 확대 실시, 검정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종돈능력 검정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87년부터 종돈 300두 이상 종돈장(14개 농장)에서 추진중인 돼지 순수계통 조성사업은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부진업체 및 사업중단업체는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양돈업체 중심으로 추진해 온 돼지계열화사업은 계열주체를 양돈업체 중심에서 육가공업체 또는 수출업체 중심으로 바꾸고, 계열농가에 대해서는 수출 및 육가공 규격돈 생산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 계열농가로서 양돈업 허가상한선(모돈 1,000두) 설정으로 모돈을 초과 사육하고 있는 계열주체의 감축대상 모돈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모돈 사육 시설비로 모돈 1두당 20만원씩 4억2천만원(3,000두분)을 연리 8%로 지원키로 했다.

### 4. 재래가축 보존 연구

정부는 멸종되어 가는 재래가축을 보존하기 위해 축산시험장과 각 도종축장으로 하여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래가축(돼지, 닭, 기타)을 확보하여 제1단계

정부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개선 및 자동화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부업농가 250개소에 모두 52억5천만원을 연리 8%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대상시설은 ▲ 자동급이 및 급수시설 ▲ 환기시설 ▲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 기존시설의 개축 및 증축 등이다.

(1989)로 염색체 형태 규명, 외부형태의 유전적 특성을 조사하고, 제2단계(1990)로 재래가축의 수집, 성장단계별 능력을 조사하며, 제3단계(1991 이후)로 재래가축의 축종별 외모형태 및 능력기준 설정, 표준발육 곡선(생산성)제정, 선발교배에 의한 재래가축의 순도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 5. 축사시설 개선사업

정부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개선 및 자동화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부업농가 250개소에 모두 52억5천만원을 연리 8%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돼지 2천두, 닭·오리 3천수 이하 사육 농가로 돼지고기 수출 및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인데, 대상시설은 ▲ 자동급이 및 급수시설 ▲ 환기시설 ▲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 기존시설의 개축 및 증축 등이다.

정부는 시설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육호수에 따라 각 도별로 업체수와 융자금액을 배정했다.

## II. 축정과 소관 정책

### 1. 유통구조 개선

1) 나주축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전남 나주에

63억2천6백만원을 지원해 1일 소 100두, 돼지 7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 공판장을 금년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2) '90 축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 축협중앙회에 12억6천6백만원을 보조하고 21억1천만원을 융자해 소 100두, 돼지 700두를 도축하고 부분육 가공포장(소 30두, 돼지 100두), 경매장(소 100두, 돼지 700두), 계류장(소 100두, 돼지 700두), 냉동·냉장(소 200두, 돼지 1,000두) 시설을 갖춘 축산물 공판장을 연내에 1개소 건설할 계획이다.

3) 육류등급제도 시행 추진 : '90년 하반기에 소와 돼지의 도체등급제를 시행한다는 목표아래 축산법을 개정, 제도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4월 30일까지 등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등급제 시행의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는 업무의 연관성, 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계속 한국축육개량협회에서 주관케 한후, 제도의 정착단계에서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등급제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 2. '90 축산진흥대회

금년 10월 중순 또는 하순에 축협중앙회의 주최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지방대회는 9~10월경에 각 도에서 개최한다.

축산진흥대회는 가축품평회와 축산물 가공품 및 기자재 전시, 축산현황 및 시책홍보, 축산진흥 유공자 시상 등의 행사를 치른다.

## 3. 양축자금 지원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을 부업 또는 전업 양돈농가들에게 1,700억원을 연리 7%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양돈농가의 경우 부업은 돼지 150두 미만, 전업은 500두 내외 사육자이다.

## III. 대기축과 소관 정책

### 1. 소 및 쇠고기 가격안정대책

금년도의 쇠고기 수요량을 국내산 9만4천톤, 수입량 5만5백톤 등 총 14만4천5백톤으로 예측하고, 수입쇠고기는 작년보다 3천톤 늘어난 5만3천톤을 수입해서 충당할 계획이다.

쇠고기의 부위별 차등가격제는 도체등급제와 연계해 점차 확대하고, 현재 1,002개소인 부위별 차등가격제 취급업소를 금년에 2,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 2원화 되어 있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체계를 축산물유통사업단→축협→축산물 도매시장→중매인→전문판매점→소비자로 유통체계를 일원화 할 계획이다. 그밖에 고급육(지육, 정육)은 모두 도매시장에 상장해 전문판매점에 공급하고, 일반육은 현재 60%인 포장육 생산비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 IV. 초지사료와 소관 정책

### 1. 사료수급정책

1)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 : 저렴한 곡물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료곡물의 곡종간 사용비율을 총량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배합사료 및 원료의 수입자유화를 확대한다.

2) 사료비 부담경감 및 국제경쟁력 강화 : '93년도부터 배합사료공장 허가를 개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2. 사료검사정책

금년에 배합사료(수입사료, 대용유 포함) 5,300점, 단미사료(보조사료 포함) 1,700점을 검사한다. 시료는 사료제조공장, 국내제조 및 수입사료 판매업소, 양축농가, 수입사료 보관창고에서 채취한다.

## V. 가축위생과 소관 정책

### 1. 축산물 위생사업

1) 축산폐수 처리사업 :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대상 이하의 영세양축농가에 간이정화시설 및 분뇨탱크를 지원하고 지역축협에서 가축분뇨를 수거,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를 위해 금년에 27억4천6백만원을 투입해 간이정화조 500개소, 분뇨탱크 설치 600개소, 분뇨처리 장비(살포기, 각반기, 체인, 블럭, 차량) 50조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간이저장조(툽발발효돈사 포함) 및 분뇨탱크 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상수도 보호구역(팔당, 대청호 주변), 축산밀집단지내 영세양축농가(법적규제이하 농가중 소 11두 이상, 돼지 51두 이상 농가)이고, 분뇨처리 장비구입 지원대상은 간이정화조 및 분뇨탱크 시설지역의 시·군지역 축협이다.

2) 국내산 육류 잔류물질 조사사업 : 7억4천9백만원을 투입,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유해중금속 등의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할 계획이다.

### 2. 가축방역사업

1)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 7억5천만원을 투입, 30두 미만 사육농가의 돼지 1백50만두에 대해 돼지콜레라와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사업 : 돼지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종돈장, 허가·등록된 양돈장과 검사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종돈장은 연 2회 72,000두, 양돈장은 연 1회 60,100두, 도축장은 연 2회 출하돼지 74,000두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긴급검사에 대비해 32,700두분의 간이진단키트를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년도 총 혈청검사두수는 174,000두이다.

3) 살처분 보상 : 가축전염병(우결핵, 부루세라

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콜레라)에 이환된 양성축은 색출하여 살처분하고, 살처분두수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예산은 5억4천5백만원(소 315두, 돼지 2,150두)을 확보했다.

4) 가축위생시험소 증설 : 총 1억8천2백만원을 투입해 전북에 1개소, 경남에 1개소 등 2개소의 가축위생시험소를 증설한다.

### 3. 동물검역사업

1) 동물 및 축산물 검역강화 : 해외의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및 축산물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하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등 검역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동물검역소의 조직을 본소(2과) 5지소를 4과 5지소로 2개과(정밀검사과, 국제검역과)를 신설하고, 인력도 현재의 119명(검역관 57명)을 162명(검역관 97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그밖에 13억1백만원을 투입해 시설(무균실, 조직배양실)과 장비(HPLC 등 15종 46점)를 보강할 계획이다.

2) 수출입 축산물중 유해물질 잔류방지 대책 :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해 동물검역소에서의 수출돈육 검사방법 개선, 원료돈 검사두수를 확대하고, 시료를 검역관이 직접 채취케 하며, 유해물질 비오염 양돈장을 지정, 운영한다.

또한 일본의 식육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에 대비해 1~3월중에 수출돈육을 대상으로 합성항균제(카바독스, 올라퀸독스) 150건에 대해 잔류실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4.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농림수산부, 보사부, 검찰 또는 치안본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밀도살, 강제급수, 부정도축 단속을 실시한다. 또 부정축산물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밀도살 등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리 : 김동성>